

정치경제학의 방법론적 토대들 : 사상사적 흐름과 이론적 비판*

지 주 형**

목 차

I. 서론	V. 1970년대 이후 케인스주의의 위기와 세계화에 대한 대응
II. 통치술로서의 고전 정치경제학	VI. 맺음말 : 정치경제학의 방법론적 토대와 지구문화정치경제학
III. 고전 정치경제학에 대한 대응	
IV. 전후의 정치경제학 : 시장주의의 승리	

[초록]

본 연구는 정치경제학의 여러 흐름들을 사상사적, 방법론적 맥락 속에 위치지음으로써 그것들이 가능하게 된 역사적 조건을 드러내는 동시에 이론적으로 유형화하고 비판한다. 정치경제학의 역사는 정치적, 사회적, 제도적, 역사적 방법론과 추상적, 수리적, 모델링 방법론의 대결 속에서 정치와 경제의 관계를 특정한 방식으로 개념화하는 역사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치경제학의 제 조류는 정치-경제 관계라는 그 방법론적 토대의 측면에서 환원주의(경제주의, 정치주의), 절충주의를 포함한 연성경제사회학/정치경제학, 경성정치경제학, 탈일국적 지구정치경제학, 문화정치경제학 등으로 보다 세분화될 수 있다. 정치경제학은 초기에는 자율적 경제영역의 독자적 논리에 기초한 자유주의적 통치술과 정책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으며 제한적이지만 여전히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분석을 지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에 정치경제학은 본래와 달리, 정치를 완전히 탈각한 ‘경제학’ 혹은 정치현상에 대한 경제학으로 변모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동으로 정치의 우위성을 주장하는 정치주의/정치환원론이나 정치학-경제학의 절충론이 나오기도 하였다. 하지만

*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2S1A5A8023570). 본 논문에 날카롭고도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세 분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필자의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제안, 지적, 비판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미진한 부분은 추후의 연구에서 보완하도록 하겠다.

** 경남대학교 문과대학 사회학과 조교수. pepemoraz@kyungnam.ac.kr

동시에 경제 및 사회질서의 정치적, 역사적, 제도적, 문화적 성격에 대한 균형 잡힌 분석과 일국 단위를 뛰어넘는 지구적 분석 또한 발전하였다. 그럼에도 종래의 경성 정치경제학은 정치분석을 상대적으로 경시할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의 지구적 차원을 경시하는 등의 약점을 가지고 있다. 탈일국적/지구적 정치경제학은 방법론적 일국주의적 편향을 극복하고 경성정치경제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였음에도 경제의 상징적·문화적 측면을 경시하고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경제적 범주(예: 시장, 자본, 화폐, 상품, 이윤, 경쟁력, 위기 등)가 마치 자연적으로 본래부터 존재했던 것처럼 물화하는 경향이 있다. 필자는 이러한 비판에 기초해 경성정치경제학과 지구정치경제학에 가장 최근에 발전된 문화정치경제학 방법론을 결합시킨 지구문화정치경제학을 하나의 방법론적 지향점으로 제시한다.

주제어 : 정치경제학 방법론, 정치경제학사, 경제주의, 정치주의, 절충주의,
지구문화정치경제학

I. 서론

정치, 경제, 정치-경제의 관계를 어떻게 이론화, 개념화할 것인가는, 이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으로도 매우 논쟁적이고 중요한 문제이다. 우선 정치-경제의 관계의 개념화가 이론적으로 문제가 되는 까닭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편으로는 정치와 경제가 서로 분리된 것으로 인식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치와 경제가 서로 밀접히 연관되고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순은 정치경제학과 정치경제의 실제 운영에 수많은 이론적, 실천적 난제를 제기한다. 또한 정치-경제의 관계에 대한 상이한 개념화는 사회현실에 대한 대응방법을 다르게 한다. 예를 들면 2008년 이후 진행되고 있는 세계 경제위기는 단지 신자유주의적 정치경제 모델의 위기일 뿐 아니라 특정한 정치-경제 관계 모델로서의 신자유주의적 정치경제학의 위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에 대한 대안도 정치-경제의 관계를 어떻게 개념화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제시될 수 있다. 상이한 정치-경제 관계에 대한 관념(예: 신자유주의적 관념, 케인스적 관념, 마르크스적 관념 등)이 상이한 현실의 분석(예: 잘못된 국가개입, 시장의 실패, 자본주의적 필연 등) 및 대안 모델(예: 국가후퇴, 금융규제와 국가개입, 사회변혁 등)을 낳는

것이다. 이렇게 정치-경제의 관계에 대한 상이한 개념화가 사회현실에 대한 대응방법을 다르게 한다는 점에서, 정치-경제 관계의 개념화/이론화는 정치경제학의 방법론을 규정하는 핵심문제, 즉 정치경제학의 토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상이한 방법론에 대한 역사적, 이론적 평가와 비판은 현대 자본주의 정치경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지식, 담론, 이데올로기들 사이의 투쟁을 이해하는 기초가 된다.

하지만 국내에서든 국외에서든 정치경제학의 여러 조류들, 특히 정치-경제의 관계에 대한 이론화를 기초 짓는 정치경제학의 상이한 방법론적 토대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비교 검토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현실에서는 정치경제학이 대부분 경제학, 정치학, 국제관계학, 사회학과 같은 분과학문의 제도적 테두리 내에서 작은 세부 전공분야로 연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분과에 자리 잡은 상이한 정치경제학의 조류와 입장들 사이에는 종종 별다른 의사소통이 없으며 때때로 서로 무시하기까지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정치경제학이 가지는 상대적인 이론적 위치에 대한 체계적 정리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그 결과 전혀 다른 종류의 이론들이 ‘정치경제학’이라는 공통된 이름을 공유하면서 ‘정치경제학’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적 혼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이 논문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정치경제학의 조류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경제, 그리고 정치-경제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들이 일관된 방법론적 관점 하에서 고찰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¹

그러므로 본 연구는 정치경제학의 핵심적인 방법론적 토대를 이루는 정치-경제 관계의 개념화/이론화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의 연구는 상이하고도 대립적인 여러 정치경제학의 흐름들(고전파, 신고전파, 역사/제도주의, 마르크스주의, 케인스주의, 신자유주의, 신경제사회학, 발전국가론, 세계체제론, 조절이론, 신그람시학과, 초국적 역사유물론, 권력자본론, 문화정치경제학 등)을 방법론적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한다.² 특히 (1) 정치경제학적 접근 방법들을 정치경제학의 역사라는 일관

1. 하나의 예외로는 정치학 분과에서 널리 쓰이는 카포라스와 리바인의 저작(Caporaso and Levine, 1992)을 들 수 있으나 이는 정치-경제의 분리를 과도하게 강조하여 그 연관관계를 적절하게 이론화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정치와 경제라는 영역을 넘어서 그것을 규정하는 넓은 범위의 ‘사회적인 것’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정치경제학에 대한 사회학적, 사회과학 방법론적 접근은 유의미하다 하겠다.

2. 참고로 본 논문이 경제학과 정치경제학 사이의 통상적인 구별을 따르지 않고 신고전파, 케인스주의, 신자유주의 등의 경제학 조류를 정치경제학의 조류에 포함시켜 함께 논의하는 것은 이러

된 사상사적 맥락에서 비교 검토하고 (2) 이들이 개념화하거나 상정하고 있는 정치와 경제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체계화/유형화하고 그 방법론적 한계들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것이며 (3) 이러한 비판에 기초하여 대안적인 정치경제학의 방법론적 틀을 모색할 것이다.

II. 통치술로서의 고전 정치경제학

1. 정치경제학의 어원

근대에 정치경제학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7세기 초이다. 1611년 프랑스의 메이예른느 튀르케(Louis de Mayerne-Turquet)는 국가관리를 가리키기 위해 정치경제학(oeconomie politiqu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4년 후인 1615년 프랑스의 제조업자 몽크레티앵(A. de Montchrétien)도 ‘국가의 질서 있는 통치’라는 뜻으로 ‘l’oeconomie politique’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 말은 한동안은 쓰이지 않다가 1767년 영국의 마지막 중상주의자인 스튜어트(James Steuart)가 출간한 『정치경제학 원리 탐구(An Inquiry into 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를 계기로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원래 가정경제 관리의 원리/법칙(그리스어로 *oikos* 집 + *nomos* 법칙) 또는 기술을 가리켰던 경제(oikonomikos; economy)라는 말에 ‘정치적(political)’이라는 말이 덧붙여 국가 수준에서의 경제의 관리 기술이나 원리를 가리키게 되었던 것이다(이현창, 2008 : 119-120; Hovart, 1985 : 611). 이러한 용어의 유래는 정치경제학의 세 가지 기원적 특징을 보여준다. 첫째는, 그것이 경제라는 말 위에 정치를 덧씌운 것이라는 점에서 정치(公)와 경제(私)의 분리를 전제한 것이었다는 것, 둘째로, 그럼에도 그러한 전제 하에서의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개입을 통해 국가의 물질적 살림살이를 증진하는 지식과 기술, 즉 일종의 국가관리학을 의미했다는 것, 그

한 ‘경제학’의 논의가 정치와 윤리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암묵적으로 또는 때로는 명시적으로 특정한 정치학과 정치-경제 관계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 정치경제학은 통상적 용법과 달리, 마르크스주의나 비주류 경제학 또는 스스로를 정치경제학이라고 일컫는 조류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특정한 정치-경제 관계 모델에 의거해 정치와 경제를 연구하는 사회과학적 탐구 전반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종래에 종종 분리되어 논의되곤 했던 경제학사와 정치경제학사를 통합적으로 고찰한다고 할 수 있다.

리고 셋째, 이러한 틀 속에서 정치와 정부(government)의 문제로, 경제는 시장(market)의 문제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푸코(Foucault, 1991, 2008)는 18세기 들어 권력의 성격이 절대적 주권성에서, 정치로부터 분화된 자율적인 사회에 대한 자유주의적인 관리, 즉 ‘통치성(governmentality)’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한다. 그는 통치술(art of government : 국가 내 인구와 사물을 관리하여 특정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결과를 산출하도록 관리하는 기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전체 국가의 수준의 경제 관리술, 즉 국가의 자기제함에 기초한 자유주의적 정치경제학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통치술로서 정치경제학은 정치와 경제의 자연적 분리를 전제한 상태에서, 인구와 사물을 적절히 감시하고 배치하여 경제적 자원을 확보하고 질서를 안정시키는 기술에 관한 지식이었다.

2. 자유주의 고전 정치경제학 : 정치와 경제의 분리

아담 스미스(Adam Smith)는 정확히 이러한 의미에서의 정치경제학, 즉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영역으로서의 경제에 대한 자유주의적 ‘통치술’이자 ‘정책학’으로서의 정치경제학을 확립한 사람이었다. 그에 따르면 “경제학은 정치가·입법자의 과학의 한 분야로서 간주되는 경우, 두 개의 별개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국민들에게 풍부한 소득이나 생활수단을 제공하는 것, 좀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충분한 소득 또는 생활수단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둘째, 공공서비스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게끔 국가 또는 공화국에 세입을 제공하는 것이다. 즉 정치경제학은 국민과 국가 모두를 부유하게 할 것을 의도하고 있다”(Smith, 1998 : 407). 그런데 그는 이러한 ‘국부(Wealth of Nations, 1776)’의 원천을 시장에서의 기술적, 사회적 분업과 자유방임(laissez-faire)에서 찾았다. 즉 스미스의 정치경제학은 국가정책론의 관점에서 접근하면서도 정치로부터 분리된, 자기조정적인 민간 경제를 상정하고 분석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중상주의 정치경제학과 구별되었다(이현창, 2008 : 122-123). 그는 정치, 종교, 도덕적 상호 작용을 포함하는 그 밖의 삶의 영역으로부터 (ㄱ) 어떤 외적 관리도 없이 (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자연적 법칙에 의해 (ㄷ) 개인들의 사익추구가 스스로 유익한 결과를 낳는 경제영역을 분리하고 (ㄹ) 자유 경쟁 및 자유방임적 경제정책을 옹호함으로써 현대 경제사상의 주요한 상식들을 기초하였다. 스미스는 동시에 (ㅁ) 국가에게 시장과 기업이 번성할 수 있는 사회적, 법적 환경(소유권 제도, 계약 집행 등)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국

가의 보호가 없을 경우 수익이 나지 않는 부문을 국가가 보호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스미스는 역사적으로 변화하는 경제적 법칙을 반드시 따라야 할(사회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자연적 법칙으로 물화시킨다. 또한 그의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주장과 달리 개인의 이기적 행동이 전체적 수준에서 공동체의 도덕적 선으로 귀결된다는 보장도 없다(‘합성의 오류’ fallacy of composition). 더구나 분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서 얻는 이익이 어떻게 사회전체로 분배될 수 있는지도 설명하지 않는다(cf. Foley, 2011 : 52).³

이러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영역으로서의 경제에 대한 ‘정책학’이자 ‘통치술’로서의 정치경제학은 맬서스(Thomas Malthus)와 리카도(David Ricardo)를 거쳐 밀(John Stuart Mill)에 의해 집대성 된다. 맬서스는 사회과학에 수학적 주장과 모델을 명시적으로 도입한 최초의 저자 중의 하나로서 인구증가와 식량증가의 불일치 및 그에 따른 빈곤이라는 약육강식의 자연법칙에 거스르는 정부개입에 반대하였다. 리카도는 타인을 직접 도우려는 시도는 모두 시장의 법칙에 의해 좌절된다는 논리를 만들어내고 자유방임과 자유무역을 주장하면서도 가정에 근거한 추상적인 모형을 구성하는 방법을 통해 자본주의 3대계급인 자본가, 노동자, 지주 간의 소득 분배라는 매우 정치적인 문제를 비정치적으로 다루었다. 밀(John Stuart Mill)은 개인의 자유로운 자기이익 추구가 지속적인 협상 변경 과정을 통해 도달한 조화상태이자 자연의 질서가 온전하게 드러난 ‘정상상태’ 개념을 중심으로 고전 정치경제학을 집대성하였다(Foley, 2011; cf. 구본우, 2012 : 53). 요약하면 고전 정치경제학은 정치와 경제를 분리시킴으로써 국가의 자기제한에 기초한 통치술과 정책학을 발전시켰다. 고전 정치경제학은 이를 통해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문제들을 다뤘지만 동시에 추상적, 수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경제를 정치나 사회로부터 자율적인, 자연적 논리를 가진 독립된 영역으로 분석하는 길을 열어 놓기도 하였다.

3. 허쉬만(Hirschman, 1994)에 따르면 원래 금전적 이익의 추구는 도덕적으로 비난 받았으나 근세에 이해관계의 추구가 용인된 것은 그것이 행동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번덕의 불확실성을 줄이며, 폭력에 비해 무해한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Ⅲ. 고전 정치경제학에 대한 대응

이후 정치경제학의 역사는 자유주의 고전 정치경제학에 의해 분리된 정치-경제 관계에 대한 다양한 대응이라고 규정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정치경제학의 역사는 정치와 경제의 제도적 분리라는 전제 위에 이 둘이 서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제시된 다양한 답변들의 역사로 이해될 수 있다.

1. 경제학의 등장 : 신고전파(정치)경제학과 정치성의 약화

19세기 후반에 들어서면 사전에 결정된 공리집합의 틀 내에서 경험을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연역적이고 수학적인 리카도적 모델 구성의 방법론을 수학적·물리학적 모델에 근거해 발전시킨 새로운 정치경제학이 등장하게 된다. 이른바 신고전파(멩거 Menger, 발라Walras, 마셜Marshall, 제본스 Jevons 등)⁴ 또는 한계주의(marginalism)는 고전학과 달리 상품의 가치를 노동이 아닌 재화의 희소성에 따라 변하는 한계 효용에서 찾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마침내는 현상으로서의 가격과 본질로서의 가치 사이의 구분, 즉 가치론을 폐기하게 된다(cf. Hong 2000). 따라서 이제 신고전파에서 경제정책의 목표는 자본축적과 성장에서 개별 소비자의 주관적 만족 또는 효용 극대화와 분배의 효율성으로 이동한다. 또한 이러한 방법론을 통해 신고전파는 독립적인 시장 논리에 의한 할당/배분 및(일찍이 밀의 ‘정상상태’ 개념이 예견한) 그에 따른 정태적 균형을 이론화하고 그 결과 독자적이고 불변하는 영역으로서의 ‘경제’개념이 형성된다. 이는 경제를 성장, 진화, 발전하는 자연의 일부로 이해하고 시장관계를 국부와 번영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간주한 고전파와 대조된다. 이제 신고전파에서 정치경제학은 자연과 독립된 인간의 주관적인, 그렇지만 초역사적으로 합리적인 영역을 다루는 사회과학으로 자리매

4. 신고전파는 최근에는 주류경제학이나 ‘신고전파 종합’을 가리키는 말이만 원래는 한계주의 또는 한계효용학파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으며 현재까지도 그러한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다. 베블렌은 마셜의 경제학을 묘사하기 위해 ‘신고전파’라는 말을 처음으로 경제학계에 도입했으며 이후 ‘신고전파’는 히스(John Hicks), 스티글러(George Stigler) 등에 의해 멩거, 제본스, 발라 등 유럽의 한계주의와 오스트리아 학파의 저작까지 포괄하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Petridis, 1999; Wikipedia, “Neoclassical economics”).

김하게 되었다(Schabas, 2005 : 154; Foley, 2011 : 194). 그리고 이에 따라 신고전파는 ‘정치적’이라는 형용사를 제거하고 경제학(economics)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정치경제학에서 정치적, 윤리적 요소를 완전히 떼어내고자 하였다. 매클라우드(H.D. Macleod)는 1875년에 정치와 무관하게 교환과 재산을 다루는 학문으로서 경제학(economics)이라는 명칭의 사용을 최초로 제안하였고 이는 이후 마셜과 제본스와 같은 권위 있는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에게 수용되어 널리 확산되었다. 사적 민간경제를 분석의 중심에 놓고 부의 성격, 생산, 분배 내지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다루는 학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이현창 2008 : 124-128). 그러나 이것은 신고전파가 정치나 정책과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우선 신고전파는 개인 효용 극대화를 위해서 정부가 독점, 불완전 정보, 외부성에 개입하는 것을 지지하였다(Foley, 2011 : 212-213, 269). 또한 신고전파의 발전과 확산은, 자본주의 발전과 더불어 자본가 계급의 권력이 강화되는 동시에 정치적 간섭이 줄어들고 시장이 자율적인 영역으로 표상되던, 이른바 ‘경쟁 자본주의’라는 당시의 시대상황을 반영한 것이었다(Hunt, 2012 : 173-215). 신고전파 경제학은 고전파의 객관주의, 윤리학, (정치적 함의를 가지는) 생산 및 계급간 배분에 대한 분석, 정책론과 결별하는 대신, 고전파의 추상적, 수학적 방법론과 지향을 발전시켰다. 그리고 가치중립의 시늉을 하면서 시장교환 및 개인의 주관적 효용과 선택에 기초해 수행되는 자유주의적 통치술을 뒷받침하였다.

2. 정치적 경제학으로서의 정치경제학의 발전 : 마르크스와 역사·제도주의

이러한 흐름과 대조적으로 동시대에 고전 정치경제학의 정치적 측면을 심화시킨 본격적인 정치경제학 또한 등장한다. 여기서 정치란 국가를 둘러싼 좁은 행위가 아니라 국가를 포함한 사회적 권력의 행사를 둘러싼 폭넓은 과정을 가리킨다. 먼저 리카도의 노동가치론과 소득분배론을 포함한 고전 정치경제학에 대한 마르크스(Karl Marx)의 정치경제(학) ‘비판’이 등장한다. 마르크스는 고전파 정치경제학이 사회관계로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역사적 특수성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은폐한다고 비판했다. 정치-경제의 제도적 분리, 그리고 노동력의 상품화(가치화)는 자본주의에 특유한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그는 무비판적으로 노동에 값을 매기는 고전파의 노동가치론과 달리 노동에 값을 매기는 것 자체를 문제시하고 그러한 노동의 가치화가 낳는 정치적, 경제적 결과

를 비판하였다(Elson, 1979). 즉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분석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자본과 노동의 계급 갈등이다. 마르크스는 리카도의 노동가치론이 잉여가치를 설명하지 못함을 비판하고 노동과 노동력의 개념적 구별을 통해 잉여가치의 생산과 착취 메커니즘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는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잉여노동과 그것을 낳는 노동력의 상품화가, ‘이른바 본원적 축적’에서 유래하게 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직접 생산자의 생산수단으로부터의 분리), 그리고 노동시간, 노동강도, 임금을 둘러싼 생산과정에 대한 통제와 투쟁이라는, 계속되는 정치적인 과정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인다. 결국 그는 그 결과 한편에서 막대한 잉여가 다른 한편에 막대한 빈곤이 축적됨으로써 자본주의의 계급관계가 필연적으로 공황을 낳는다는 것을 역설한다(Marx, 1976). 간단히 말해 마르크스는 경제를 자율적 영역으로 파악하는 자유주의 고전 정치경제학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밝히고 자본주의의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성격을 전면에 부각시킨다.

한편 리카도적 모델 구성과 비교우위론에 근거한 자유무역주의에 대한(직접적으로 정치적이라기보다는) 역사중심적인 비판도 발전하였다. 이러한 비판은 주로 독일의 후발 산업국가로서의 상황을 반영하였다. 리스트(Friedrich List)는 추상적이고 연역적이고 일반적인 경제이론을 비판하면서, 국가경제는 고유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으며, 독일과 같이 산업 발전의 역사적 단계가 낮은 곳에서는 국내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어 본 궤도에 도달할 때까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한편 같은 역사학파에 속하였거나 그 영향을 크게 받은 쾰바르트(Werner Sombart), 베버(Max Weber), 슈페터(Joseph Schumpeter)도 자본주의의 정치적, 역사적, 제도적, 문화적 특성에 주목하였다. 쾰바르트는 경제적 자유주의, 사사화, 귀족적 구조, 시장교환의 일반화, 대규모 산업생산, 사치와 같은 자본주의의 정치적, 역사적, 문화적 특성을 지적했다(Sombart, 1997, 2001). 한계주의의 영향을 받았지만 베버 또한 합리적 자본주의, 정치적 자본주의, 전통적 상업 자본주의와 같이 자본주의의 역사적 유형을 구별하고 자본주의의 기원을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합리성에서 찾았다(Weber, 1976, 1979; cf. Swedberg, 1998 : 548).⁵ 끝으로 경제학에서 수학적 방법의 사용을 옹호하였던 슈페터도 실제로는 베버

5. 특히 이 둘은 자본과 자본주의가 회계라는 제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도 지적하였다. 쾰바르트는 “자본은 복식부기 없이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Sombart, 1928 : 120, 구분우, 2012 : 185에서 재인용)라고 단언했고, 베버는 자본주의를 “근대 부기의 수단을 따라 그 수익성을 계산할 수 있고, 대차대조표의 작성에 의해 통제되는 영리 경영의 방법으

에게서 이론사회학, 경제사, 경제사회학을 통합한 ‘사회경제학’의 개념을 받아들여 경기순환과 경쟁 등 경제의 동태적 발전을 기업가의 혁신과 ‘창조적 파괴’를 통해 설명했다(Schumpeter, 1990 : 7장; 2005 : 4, 6장; 2007 : 4장; 박길성, 이택면 2007 : 81-112).

한편, 역사학과와 유사하게 미국의 초기 경제학계는 경제를 추상적 논리가 아니라 사회제도 및 권력과의 연관 속에서 이해하려는 제도학파가 주류를 형성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로는 베블렌(Thorstein Veblen)을 들 수 있다. 베블렌에 따르면 자본은 신고전파 경제학에서 말하듯이 자본재/생산수단이 아니라, 소유권과 독점 또는 ‘깡판 놓기(sabotage)’를 통해서 공동체의 물질적/비물질적 장비가 배타적 소득의 원천, 즉 자산이 된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자본축적 과정은 매우 정치적인 권력과정으로서 사치본능을 가진 유한계급 및 ‘업계의 거물들’과 제작본능을 가진 엔지니어들과의 갈등을 수반할 것으로 기대된다(Veblen, 2009, 2012).

끝으로 폴라니(Karl Polanyi)는 경제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정치적 성격을 누구보다도 강조한 학자이다. 첫째, 그에게 있어서 자본이란 사적 소유권에 기초해 장부상의 가격 증감에 따라 사물을 바라볼 때에만 실질적이 되는, 순수하게 문화적이고 제도적인 현상이다(구분우 2012 : 174, 178). 둘째, 폴라니는 경제란 언제나 사회에 묻어들어(socially embedded)가 있으며 따라서 독립된 “자기조정적 시장이라는 아이디어는 한마디로 완전히 유평피아이다”라고 역설했다(Polanyi, 2009 : 94).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조정적 시장이 성립하면 시장사회가 도래한다. “경제 체제를 시장이 통제할 경우 ... 사회가 시장에 딸린 부수물로서 운영되게 된다... 경제가 여러 사회관계 안에 묻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 사회 관계가 경제 체제 안에 묻어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 사회는 그 경제 체제가 스스로의 법칙에 따라서 작동하도록 존중하는 방식으로 다시 틀을 갖추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Polanyi, 2009 : 209-210).

요약하면 신고전파 경제학과 달리, 마르크스, 역사학과, 제도학파, 폴라니 등은 경제 현상에 대한 ‘정치사회적 분석’, 그야말로 ‘정치적’인 경제학을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고전파 정치경제학의 보편주의적인 추상적/모델 구성적 방

로 대부분의 수요가 충족되는 사회”라고 정의했다(Weber, 1990 : 284-5, 구분우 2012 : 200에서 재인용). 왜냐하면 자본의 핵심인 이윤은 장부상에 기록되고 계산되는 가격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론 보다는 정치적, 역사적, 제도적 분석과 방법론을 발전시켰다. 그렇다고 이들이 경제를 정치, 제도, 문화 등으로 환원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역사적으로 구성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구별적 특징을 인식하고 있다. 물론 이들에게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마르크스는 때때로 고전파 정치경제학의 본질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자본은 사회적 관계이지만 동시에 생산수단으로 개념화된다. 또한 마르크스의 국가분석은 불완전한 상태에 머물렀다. 폴라니도 정치·사회와 경제의 관계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보인다. 즉 한편으로는 경제와 사회를 떼어낼 수 없다고 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조정적 시장이라는 형태로 떼어낼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다. 끝으로 ‘정치적 경제학’의 가장 실제적인 한계는 이러한 흐름이 신고전파 경제학과의 지적 투쟁에서 패배하여 경제학의 주변부로 물러나거나 사회학, 정치학 등으로 흡수되고 말았다는데서 찾을 수 있다(cf. Yonay, 1998; Hodgson, 2001; Fourcade, 2009).

3. 정책학의 부활 : 케인스 거시경제학의 등장

정책학적, 규범적인 성격을 탈피하려는 신고전파의 노력은 물론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러한 시도 자체가 이미 정책적, 규범적 함의, 즉 통치술의 특성을 띠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신고전파 경제학 하에서 국가의 개입이 훨씬 더 제한적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이와 달리 케인스(John Maynard Keynes)의 거시경제학 또는 거시정책학은 경제학의 ‘일반이론’을 지향하는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신고전파의 탈정책학적, 탈규범적 성격을 극복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그는 한편으로 일반적 이론틀을 통해서, 불확실성 때문에 유동성에 대한 선호가 커지고, 그에 따라 저축에 대한 대가인 이자율이 투자 기대 수익률을 상회하게 된다면, 투자자는 현금이나 예금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투자와 고용이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그는 금리를 낮춰 이자생활자를 ‘안락사’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Keynes, 2007 : 451-452). 하지만 그럼에도 소득증가와 소비증가 사이의 격차 때문에 불황은 피할 수 없으며, 그런 경우엔 이자율을 낮추더라도 투자가 곧바로 회복되지 않고 유효수요 또한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때문에 케인스는 유효수요, 투자, 고용, 소득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재정정책, 통화정책, 사회정책 등을 통한 불확실성 해소와 경기조절이 필요함을 역설했다(Keynes, 2007; Skidelsky, 2000). 케인스의 거시경제학은 고전파 정치경제학이 또 다른 형태로 발전한 모

습을 보여준다. 즉 그의 ‘일반이론’은 한편으로는 유효수요, 투자, 고용, 소득과 같은 거시경제 변수를 분석단위로 삼고, 매우 정치적 성격을 띤 ‘이자생활자의 안락사’ 주장에서 보이듯 경제정책의 정치적, 규범적 성격을 이해함으로써, 제한적이거나 ‘정치적 경제학’의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를 독자적 영역으로 간주하고 추상적, 수학적 분석을 사용함으로써 신고전파 경제학의 방법론과 쉽게 호환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케인스의 이론과 그를 계승한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은 역사적, 제도적, 문화적 맥락을 경시하는 한계를 가진다(Hodgson, 2001 : Ch. 15).

IV. 전후의 정치경제학 : 시장주의의 승리

앞서 보았듯이 고전파 정치경제학의 통치술적 측면, 정책학적 측면, 그리고 정치적 측면은 각각 신고전파 경제학, 케인스 경제학, 그리고 마르크스 및 역사-제도주의 정치경제학에 의해 계승되었다. 하지만 20세기 들어 신고전파 경제학과 케인스의 일반이론이 승리(그리고 정치경제학과 특수이론의 패배)하면서 정치경제학이라는 이름은 제도화된 학문영역에서는 점차로 잊혀지게 된다. 이로 인해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사고가 사회과학 내에서 지배적이 되었다. 더구나 이러한 ‘경제학’의 승리는 정치를 경제에서 배제하는 것을 넘어 정치도 경제(주류 경제학이 이해하는 경제, 즉 좀더 정확히는 시장)와 같은 종류의 것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그 결과 정치경제학이라는 말은 본래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엉뚱한 의미로도 쓰이게 되고 경제를 최우선시하는 정치사회사상도 등장한다.

1. 정치현상에 대한 경제학 : 공공선택론과 합리적 선택이론

1930년대의 공황이 뉴딜 정책에 의한 유효수요의 창출 및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한 전쟁특수와 과잉자본의 파괴를 통해 해소되고, 전후 자본-노동의 대타협을 통해 대량생산-소비의 패턴과 국가의 케인스적 경기조절이 정착됨에 따라 1950-60년대 자본주의 세계는 전례 없는 호황을 경험하게 된다. 이 시기가 새뮤얼슨(Paul Samuelson)의, 이른바 신고전파종합(Neoclassical Synthesis: 장기적 신고전파 미시경제학과 단기적 케인스주의 거시경제학

의 종합)으로 대표되는 근대 경제학의 전성기이다. 케인스 정책의 경기 조절 능력에 대한 믿음은 경제학자들과 대중으로 하여금 공황 없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낙관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와 더불어 신고전파 경제학의 방법론은 경제 이외의 영역에 확대되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⁶ 그 대표적인 예로는 다운스(Anthony Downs)의 경제학적 민주주의 분석(*Economic Theory of Democracy*, 1957), 허쉬만(Albert O. Hirschman, 1970)의 탈퇴, 항명, 충성(*Exit, Voice and Loyalty*, 1970)에 대한 연구, 올슨(Mancur Olson)의 집단행동 논리(*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1971)에 대한 분석 등이 있다. 이들은 투표, 정당, 사회운동 등에서 개인들의 합리적인 선택 때문에 생기는 정치적 딜레마에 주목하였다. 또한 신고전파 방법론은 제도 분석에도 적용되어 윌리엄슨(Oliver Williamson), 노스(Douglas North) 등의 신제도주의 경제학을 낳기도 하였다. 이러한 발전은 사회적 가치의 분배라는 정치적 문제에 대해 경제학적으로 최선의, 또는 합리적인 해결책의 가능성을 모색한 애로우(Kenneth Arrow)나 뷰캐넌(James Buchanan)의 공공선택론/재정학/후생경제학, 그리고 수학에서의 게임이론의 발전에 따른 것이었다. 이러한 ‘경제학 제국주의(economic imperialism)’의 정점은 베커(Gary Becker)와 콜맨(James Coleman)으로 대표되는, 사회현상에 대한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에서 발견된다.

더구나 이러한 신고전파 경제학의 득세와 합리적 선택이론은 마르크스주의에도 영향을 주었다. 우선 스라파(Piero Sraffa)에 의해 리카도가 재발견되고 그에 영향 받은 포스트케인지언들과 신고전파 경제학의 대결(대표적으로 ‘자본 논쟁’ 또는 ‘캠브리지 논쟁’)이라는 맥락 속에서, 1970년대 마르크스 정치경제학의 수리적 전회 또는 경제학화가 일어났다(예 : Morishima, 1973; Okishio et al., 1990). 또한 80년대에는 분석적 마르크스주의(analytical Marxism)라는, 정통마르크스주의는 그 내용이 아니라 방법론에 있다는 루카치(Lukacs, 1993)의 주장과 달리, 신고전파 경제학의 방법론을 받아들여 마르크스주의적 주장/내용을 입증하려는 지적 움직임(분석 마르크스주의)도 생겨났다(예 : Elster, 1985; Roemer, 1986).

이렇게 신고전파 방법론 또는 수리적 방법론을 적용해 정치사회현상을 분석하려고

6. 한편 시장경쟁에 비견되는 ‘정치적 영도권을 둘러싼 경쟁’을 민주주의의 본질로 보는 슈페터의 엘리트 민주주의론은 미국에서 다윈주의 정치학으로 발전하였다(Schumpeter, 1990 : 361-366; Pateman, 1970).

한 사람들 중 대다수는 경제학적 방법론의 정교화와 적용에 치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연구를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 혹은 political economics)’이라고 부르거나 여전히(관습적으로) 정치경제학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 새로운 유형의 정치경제학을 우리는 ‘정치현상에 대한 경제학’으로서의 정치경제학으로 규정할 수 있다. 특히 봉건제의 유산 없이 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가장 발전한, 그래서 합리적 이윤 추구가 가장 큰 사회적 행위 동기가 되는 미국에서 이러한 이론들이 상당한 타당성을 가지고 발전한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2. 신자유주의의 경제학적 정치사상

사회사상적 측면에서 케인스주의적 국가개입을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노예로의 길(Road to Serfdom, 1944)’이라고 비판했던 하이에크(Friedrich A. von Hayek)는, 인식론적 측면에서 국가 중앙계획의 ‘치명적 자만(Fatal Conceit, 1988)’에 공격을 가한다. 여러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복잡한 경제(catalaxy)에서는 사회적으로 어떠한 재화가 얼마만큼 필요한지에 대한 지식이 널리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 의해 생산과 배분이 합리적으로 계획될 수 없으며, 소비자의 선호에 대한 정보를 담은, 시장에서의 가격신호에 의해 경제활동이 매개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한편, 프리드먼은 고전 정치경제학의 화폐수량설을 현대적 맥락에서 부활시켜, 케인스적 재정지출을 공격하였다(Friedman and Friedman, 1980). 신자유주의 사상에 공통적인 것은 국가의 역할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개인’의 ‘자유’, 특히 재산권을 보호해야 경제가 발전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경제적 의사결정은 ‘시장’ 또는 ‘민간’에 맡겨야 하고 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도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 기준’에 근거해서 평가받아야 한다. 실로 푸코는 신자유주의에서는 시장이 ‘경제적 법정(economic tribunal)’으로서 국가를 평가함을 지적한다(Foucault, 2008 : 247). 또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법적 한도 내에서만 민주적 의사결정이 받아들여지는 ‘법치 민주주의(legal democracy)’가 제시된다(Held, 2006 : 607). 고전 자유주의와 달리 신자유주의에서 시장은 단지 국가로부터 분리될 뿐만 아니라 국가보다 우위에 선다. 이렇게 경제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정치제도를 논한다는 의미에서 신자유주의 경제학과 경제사상은 경제학적 정치사상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3. 중간평가 : 시장주의 또는 경제주의 정치경제학의 의의와 비판

이제까지 보았듯이 희소성, 경쟁, 균형과 같은 독자적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상정되는 경제영역에 대한 분석들, 즉 시장주의 또는 경제주의 정치경제학(고전 정치경제학, 신고전파 경제학과 신고전파 종합, 공공선택론/합리적 선택론, 신자유주의)은 사회적으로 다음과 같은 지배적 효과를 만들어낸다. 첫째, 경제적으로 신고전파 경제학과 신자유주의는 영리활동과 자본축적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개입을 제한하는 근거로 사용된다. 둘째, 정치적으로 시장주의 경제학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자본의 지배를 은폐하고 사익의 추구를 정당화함으로써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데 기여한다. 셋째, 사회적으로 시장주의 경제이론의 비경제영역에 대한 적용과 그러한 지식의 전파는 주체의 ‘호모 이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 : 경제적 인간)’화를 촉진한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보았을 때 이들이 상정하는 정치-경제, 그리고 도덕(당위)-현실(실정)의 구별은 매우 자의적이고 모순적이어서 이들을 순수한 경제주의나 시장주의 보다는 절충주의 또는 ‘비대칭적 경제주의’라고 해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첫째, 이들은 한편으로는 경제가 스스로 작동한다고 하고 국가의 개입에 반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율적인 자기조정적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때때로 요청하는데 그 근거가 체계적이거나 일관되지 못하다. 어떤 때는 시장실패의 보완이고 다른 때는 소유권 보호와 치안, 또 다른 때는 경쟁 촉진 등 여러 가지 이유들이 그때그때 제시된다. 따라서 국가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deus ex machina)처럼 편리할 때 등장하게 되며 어떠한 정치적 개입이 옳고 그른가가 그다지 분명하지 않다. 둘째, 이와 관련해서 이들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일 때는 시장의 효율성을 찬양하다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는 그것을 시장이 아닌 잘못된 국가개입 탓으로 돌린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들의 경제주의는 비대칭적이다. 셋째, 이들은 자신의 이론이 현실을 가치중립적으로 묘사한다고 주장하지만 막상 이론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 이론의 오류를 인정하는 대신 현실이 비정상적이라면서 현실이 이론에 맞춰야 합리적이 된다는 규범적 주장으로 말을 바꿔 타는 경향이 있다. 요약하면 경제주의는 경제를 독자적인 논리를 가진 자율적 영역으로 상정하면서 오직 성공만 경제의 자율적 논리에 의해 설명하고 실패는 경제외적 논리로 설명한다(비대칭성). 하지만 그들 자신의 논리에서도 그러한 시장실패를 보상하거나 교정하는 것은 놀랍게도(!) 시장이 아니라 국가개

입이다(자기모순).⁷ 결론적으로 시장주의 또는 경제주의 정치경제학 이론이 노정하는 이러한 자기모순과 현실과의 괴리는 대안적 정치경제학의 필요성을 지시한다.

V. 1970년대 이후 케인스주의의 위기와 세계화에 대한 대응

1970년대 들어 1950-60년대에 걸친 호황의 시대가 저물고 서구 자본주의 경제는 심각한 불황에 빠지게 된다. 또한 달러의 금태환 중지⁸에 따라 브레튼우즈 국제금융체제의 붕괴가 일어나고 금융세계화가 진전하게 된다(Helleiner, 1994).⁸ 그 결과 국민경제를 기본 분석단위로 삼고, 케인스주의를 넘어선 정책적 분석을 발전시키지 못하였으며, 정치적-제도적 분석이 결여된 주류 ‘경제학’의 유용성이 의심 받게 되는 경제학의 위기가 도래하였다. 비록 (당시에는 비주류경제학으로 취급받던) 신자유주의의 득세로 귀결되었지만, 1970년대의 위기는 정책학 및 정치적 분석이라는 그 본래적인 의미에서의 ‘정치경제학’도 부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국민국가를 넘어선 세계 경제에 대한 정치-사회학적, 제도적 분석 또한 각광을 받게 되었다. 여기서 특기할 만한 것은 신고전파와 신자유주의의 경제학적 정치관에 대한 도전이 주류 경제학 바깥의 정치학, 국제관계학, 사회학, 지리학 등과 비주류 경제학계에서 등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한 주목할 만한 정치경제학의 조류는 다음과 같다.

7. 폴라니는 이러한 비대칭적 경제주의의 모순을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지적한 바 있다. “경제적 자유주의 변론자들은 ... 자유주의를 통해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한 것은 모조리 자유주의 비판자들이 내민 정책들 때문이며,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여러 해악들은 경쟁 체제나 자기조정 시장 탓이 아니라 경쟁 체제에 대한 간섭과 자기조정 시장에 대한 개입 때문이라는 주장을 그 모습만 바꾸어가며 오늘날에도 끝없이 반복하고 있다[...] 시장 체제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는다면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은 그것을 확립하기 위해서 서슴지 않고 국가개입을 요구할 것이며, ... 또 그렇게 해야만 할 것이다”(Polanyi, 2009 : 399, 407).

8. 금 태환 본위제(gold exchange standard)의 종말은 변동환율제를 가져 왔고 그 결과 국제통화는 투기의 대상이 되었으며, 궁극적으로는 화폐와 실물경제와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단절시켜 버렸다.

1. 신경제사회학, 발전국가론, 세계체제론

사회학에서는 폴라니의 사회적 배태성(social embeddedness) 개념과 신제도주의 거래비용경제학 등에 영향을 받고 최근에는 사회적 연결망 분석과 결합한 신경제사회학이 발전하였다. 신경제사회학은 시장이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가지 사회적 조건들(문화, 사회적 연결 등)에 주목한다(e.g. Granoveter, 1994; Swedberg and Granovetter, 2001). 이는 사회적인 것의 역할을 간과하는 경제학에 대한 사회학의 반박이었으나, 경제적 행위의 핵심(생산, 축적, 분배)에 대한 분석은 여전히 경제학에 맡겨두고, 시장의 작동을 돕는 제도과 규범에 관한 연구에 치중한다는 점에서 **절충주의**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물론 경제학과 정치학에서의 기여도 컸지만) 사회학에서 기여한 또 하나의 정치경제학 분야는 ‘발전국가론’이다. 레이건(Reagan)/대처(Thatcher)의 신보수주의/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한 발전국가론은 동아시아 국가의 후발 산업화와 경제발전에 대한 사례 연구로부터, 사회와 연계된 국가의 강력하고도 효율적인 산업정책, 그리고 심지어는 시장가격의 왜곡이 경제와 산업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Johnson, 1982; Amsden, 1989; Evans, 1995; Weiss and Hobson, 1995; Woo-Cumings, 1999). 그러나 시장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인지 발전국가론은 마치 국가정책만 올바르게 하면 경제가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정치주의/정치환원론적** 경향을 종종 보여준다는 한계가 있다. 정치주의 정치경제학의 다른 예로는 경제활동을 정치적 문화적 담론으로 환원시키는(하지만 거창한 방법론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구체적인 정치경제학적 분석을 제시하지는 못하는) 포스트모던 정치경제학(Resnick and Wolff, 1987; Diskin and Sandler, 1993), 그리고 경제적 범주를 당대의 계급투쟁으로 직접 환원하는 경향이 있는 개방 마르크스주의(Open Marxism)나 자율주의(autonomism) 또는 노동자주의(*operaismo*) 등을 들 수 있다.

끝으로, 최근 가장 각광받고 있는 사회학에서 발전된 정치경제학 이론으로는 세계체제론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세계체제론은 세계경제를 분석단위로 하며, 따라서 경제현상을 국민국가 단위로 분석하는 대신, 체제로서의 세계경제 속에 위치시켜 파악한다. 특히 산업 독점성의 정도에 따라 핵심부, 반주변부, 주변부로 나뉘는 세계경제의 기축적 노동분업(axial division of labour)과 불평등 교환에 주목한다(Wallerstein, 2004). 최근에 세계체제론은 금융화하는 자본축적의 논리와 영토적 국가권력의 세계 헤게모니의

결합을 통해 수 세기에 걸친 자본주의 세계경제 변화의 동학을 설명하는 시각을 선보이기도 하였다(Arrighi, 1994). 그러나 세계체제론은 경제를 세계체제로 보는 반면에 정치 는 단순히 국민국가 체제(inter-state system)로 파악하는 절충주의적 경향이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세계경제에 대응하는 세계정치, 특히 국가간 관계를 넘어서 활동하는 초국 적 자본가계급이나 비정부 행위자 등의 역할을 경시함으로써, 정치분석의 범위와 밀 도를 떨어뜨리고 정치와 경제의 상호연관을 충분히 이론화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 고 있다.

2. 국제정치경제학과 급진 경제지리학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정치경제학의 조류는 국제관계학과 지리학에서 제시되었다. 세계체제론뿐만 아니라 이들 또한 근대 사회과학의 인식론을 지배하는 이른바 ‘방법 론적 일국주의(methodological nationalism)’를 극복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우선, 달러의 금 태환이 중지됨에 따른 브레튼우즈(Bretton Woods) 국제금융체제의 붕괴 및 국가간 무역 마찰 등은 국제경제에 대한 정치학적, 제도적 분석의 필요성을 증대시켰고 이에 따라 1970년대에 국제정치경제학(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이, 전통적으로 안보/외교 문제에 치중하던 국제관계론(international relations)의 이단적 하위 분과로 등장하게 되었다(cf. Cohen, 2008). 국제정치경제학의 중심 주제는 국제경제 제도에 대한 정치학적 분석이며, 국제 금융, 무역 체제, 국제기구 및 초국적 통치기구 등을 정치경제학의 분석 대상으 로 확대하는 기여를 하였다(e.g. Ruggie, 1992; Strange, 1997; Gilpin, 2001).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국제정치경제학의 주류는 국민국가 및 그들 간의 ‘국제관계’를 가장 중요한 분석 단위 또는 행위자로 다루고, 주류경제학이 주장하는 자율적인 시장논리를 인정하 여 자유무역을 일반적으로 신뢰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e.g. Keohane, 1989).

다음으로 국민국가 중심적 시각을 뛰어넘은 중요한 공헌으로는 여러 다른 공간적 스케일(지방, 지역, 도시, 교차국경 등)에 대한 분석을 발전시킨 지리학, 특히 자본축적의 공 간적 조건의 생산과 조직에 초점을 맞춘 급진 경제지리학 또는 공간사회학을 들 수 있 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하비(Harvey, 1999), 카스텔(Castells 1996), 소자(Soja, 1996), 래쉬와 어리(Lash & Urry, 1987, 1994) 등을 들 수 있다. 하비는 자본축적 및 자본주의의 위기 해소를 자 본주의 정치경제의 시공간적 구성과 관련짓는 독보적인 업적을 남기었는데, 국가 분

석에 있어서 취약한 점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브레너(Brenner, 2004) 등이 국가공간 분석에서 뛰어난 업적을 내고 있다.

3. 경성정치경제학과 지구정치경제학

새로운 학술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방금 서술한 새로운 정치경제학의 조류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한계는 생산, 축적, 분배와 같은 핵심적 문제들에 대해 신고전파나 주류경제학을 대체하는 본격적인 경제분석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또는 국민국가주의를 여전히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이들을 연성경제사회학/정치경제학(soft economic sociology/political economy)이라 부를 수 있다.⁹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들이 각자의 분과적 한계로 인해 방법론적으로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즉 이들이 경제분석의 핵심에 들어가지 못하는 한, 이들 정치경제학은 일종의 정치학-경제학 절충주의(예 : 신경제사회학, 세계체제론, 일부 국제정치경제학 등)에 빠지거나, 또는 정반대로 경제분석을 정치분석으로 대체하는 경제에 대한 ‘정치학적’ 접근 또는 정치주의(예 : 발전국가론, 포스트모던 정치경제학)에 빠질 위험을 안고 있다. 전자의 경우 정치와 경제의 분리를 받아들이거나 양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론화가 체계적이지 못해 단순히 정치·사회학과 경제학의 방법론을 혼합하는데 그칠 위험이 있다. 후자의 경우는 경제현상을 정치과정으로 환원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과 자본축적이 가지는 정치로부터 독자적인 논리를 간과하기 쉽다. 또한 이들은 경제지리학을 제외하면 국민국가주의 또는 국민국가 중심적인 국제주의에 빠질 위험 또한 안고 있다. 이것은 정치분석을 공간적으로 제한하고 그에 따라 경제분석 또한 공간적으로 제한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은 역시 전후 케인스주의 복지국가와 포드주의의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촉발된 경성정치경제학(hard political economy)과 지구정치경제학(global political economy)이다.

첫째, 마르크스, 쾰바르트, 베버, 베블렌, 폴라니 등의 정치적, 역사적, 제도적 정치경제학의 전통에서 있는 경성정치경제학은 경제현상의 사회, 정치적인 성격과 배경을

9. 이하의 연성 경제사회학과 경성정치경제학의 구분은 Jessop 2000 : 323을 따른 것이다.

강조한다. 즉 경제현상을 물화하지 않고 그 제도적,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 특수성에 주목하지만 경제 바깥에 존재하는 것에 대한 분석에 머물지 않고 아닌 경제 내부에 존재하는 정치적/권력적인 것을 분석하는 정치경제학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경성정치경제학은 경제의 정치적인 본성을 강조하지만 경제분석을 회피하거나 그것을 정치분석으로 성급하게 대체시키지 않는다. 대신 생산, 축적, 분배와 같이(수요-공급의 가격 메커니즘이나 가치 법칙 등의 시장적 논리와는 구별되는) 경제적인 영역의 작동을 분석하면서 경제와 정치의 상호작용을 적극적으로 사고한다(cf. Jessop and Sum, 2006 : 244).

경성정치경제학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조절학과(Regulation School : Boyer, 1994; Boyer and Saillard, 2002), 미국의 사회적 축적구조론(social structure of accumulation, SSA : Kotz, McDonough, and Reich, 1994), 자본주의의 다양성(varieties of capitalism) 이론(Hall and Soskice, 2001; Hancke, 2009) 등을 들 수 있다(cf. Hollingsworth and Boyer 1997). 넓게는 제도주의에 속하는 이들은 자본축적의 생산기술 패러다임과 경제학을 분석하는 동시에, 자본축적이나 경제성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역사적으로 고유한 사회적, 정치적 제도와 규범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조절학과와 사회적 축적구조론자들은 자본주의 경제 위기의 원인을 그들이 조절양식(mode of regulation) 또는 사회적 축적구조라고 부르는 그러한 사회적, 정치적 제도와 규범의 부재나 붕괴에서 찾는다. 한편 자본주의의 다양성 이론가들은 모든 나라의 경제가 자유시장경제(liberal market economy)로 수렴하지 않으며 국가와 제도에 의해 조정된 시장경제(coordinated market economy)라는 경쟁력 있는 다른 자본주의 유형이 있음을 역설한다. 그러나 이들은 대체로 국민국가라는 분석단위에 매몰되어 있으며 국가 및 정치분석에도 취약하다(cf. Purcell, 2002; Peck & Theodore, 2007).

둘째, ‘지구정치경제학’은 경성정치경제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방법론적 일국주의에서 벗어나는 정치경제학을 말한다. 지구정치경제학은 국가 이외에도 국제기구, 초국적 기업, 금융자본, 초국적 자본가 계급과 단체, 시민단체 등의 비국가 행위자들에 실질적인 관심을 가지며, 분석의 대상을 국제관계나 국내정치로 한정하지 않고 국제적-국내적 연관관계를 살피며, 국민적 스케일들간의 관계 뿐 아니라 지방적, 지역적, 지구적 스케일 및 그들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분석을 포괄하려 한다.

지구정치경제학의 사례로는 국민국가간의 관계에 보다 집중하는 국제정치경제학

과 달리 전지구적 구조, 부르주아 세계 시민사회, 초국적 자본가계급 등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을 시도하는 콕스(Robert Cox, 1986, 1987), 길(Stephen Gill, 1993) 등 ‘이탈리아 학파’의 신그람시주의(neo-Gramscianism), 또는 반 데어 페일(van der Pijl, 1984, 1998), 오버벡(Overbeek) 등의 초국적 역사유물론(transnational historical materialism)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콕스는 물질적 능력, 이념, 제도라는 세 범주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산의 조직, 국가-사회 복합체, 세계질서로 이뤄진 지구정치경제의 역사적 구조를 분석할 것을 제안한다. 반 데어 페일은, 영국에서 태동되어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제도적 분리 및 자유주의적 시민사회의 국가에 대한 우위를 확립한 로크적 국가-사회 복합체(Lockean state-society complex)의 전세계 확산과 대서양 지배계급(Atlantic ruling class)의 형성을 밝혔다. 하지만 신그람시학과와 초국적 역사유물론은 지구적 질서의 형성에 대한 역사적 분석에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세계경제의 축적구조를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인다.

셋째, 닛잔과 비클러의 ‘권력자본론’은 분석 범위를 지구적 공간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자본축적이 사회적 권력관계의 함수라는 것을 밝히면서도 경제분석을 정치분석으로 대체하지 않는 경성 지구정치경제학의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Nitzan and Bichler, 2002, 2009). 그들은 베블렌의 자본이론에 근거하여 자본은 본래적으로 화폐적인 현상이며 사회를 조직하여 이윤을 얻고 자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권력을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지구적인 수준에서 지배적 자본이 산업적 효율성을 희생시키고 가격인상과 인수합병 등을 통해 이익을 얻는 차등적 축적 전략을 계량적으로 분석한다. 하지만 이들은 권력과 자본의 연관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현대 자본주의에 고유한 국가 권력과 자본권력의 제도적 분리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결국 경성정치경제학이나 지구정치경제학 모두 그간의 모든 한계를 극복했다거나 자신들이 제시한 방법론적 기준을 충족시켰다고 말하기 힘들다. 조절학파나 사회적 축적구조론, 자본주의의 다양성 이론은 정치분석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방법론적 일국주의의 탓에 빠져 있다. 반면에 지구정치경제학의 신그람시학과나 초국적 역사유물론은 경제 분석에 취약하고 전지구적 축적과정의 구조를 아직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권력 자본론도 경제분석에 치중하면서 정치와 국가의 고유성에 대한 분석에 상당히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이들은 자본주의 경제가 기본적으로 정치적, 역사적, 제도적, 문화적으로 구성된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일단 구성된 자본주의

하에서의 기본적인 인식론적, 존재론적 범주들(예 : 시장, 자본, 화폐, 상품, 이윤, 경쟁력, 위기 등)을 비교적 딱딱하게 고정된 것으로 파악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4. 지구문화정치경제학

밥 제습(Bob Jessop)과 나이링 섬(Ngai-Ling Sum) 등이 제안하는 문화정치경제학(cultural political economy)은 자신들이 추구해 온 전략관계론적 국가론(strategic-relational approach)을 포함한 기존의 비판적 정치경제학에 비판적 담론분석(CDA : critical discourse analysis 또는 비판적 기호분석 critical semiotic analysis)을 결합시킨 접근법이다(Jessop and Sum, 2001; Jessop, 2004, 2009; cf. Fairclough et al., 2002). 종래의 정치경제학이 상대적으로 정치와 경제의 문화적 배태(cultural embedding)을 경시하여 정치경제의 보다 심층적인 사회적 구성을 간과하였다면 문화정치경제학은 “문화적 선회(cultural turn)”를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기호작용(semiosis)’에 기반한 문화적, 상징적, 담론적 과정이 정치적, 경제적 행위와 제도를 구성하는 역할에 주목한다(Jessop, 2009 : 336-337).¹⁰

경성정치경제학과 지구정치경제학을 포함한 정통 정치경제학은 고전 정치경제학 이래의 ‘자연주의’적 경향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들은 시장, 자본, 화폐, 이윤, 축적, 성장, 노동, 경쟁력, 위기와 같은 이론적 개념과 담론을 분석에 있어서 여전히 당연시하거나 물화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주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상이한 계산과 이해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설명하는데 취약하다. 이와 달리 문화정치경제학은 사회적 주체와 대상이 존재하는데 있어서 기호작용이 “근본적인 계기(foundational moment)”라고 본다. 현실의 국가와 자본주의는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 복잡성을 축소시킴으로써 구체적인 형태와 성격을 형성하는 과정은 권력에 배태된 다양한 기호작용 및 비기호적 물질적 힘에 의해 매개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문화정치경제학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추동되는 기호작용이 경제적 주체와 대상의 구성에 관여한다고 파악하고 기호작용을 정치경제학적 분석의 기초에 놓는다(Jessop, 2004 : 160-164; cf. Luhmann, 1995). 그리고 이를 통해 문화정치경제학은 경제의

10. 여기서 기호작용이란 상호주관적으로 의미가 생산되는 과정을 가리키며, 단지 의미를 가지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사태와 과정에 인과적인 영향력을 가할 수 있는 힘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치적, 사회적 성격에 대한 분석을 한 층 더 심화한다.

예를 들면 국가와 자본주의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상상될 수 있다. 개발, 근대화, 수출입국, 경쟁국가, 세계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 지식기반경제, 금융허브, 선택적 복지, 보편적 복지, 선진화, 녹색성장, 공정사회 등 사회와 정치경제의 성격을 재규정하려는 수많은 정치적, 경제적 담론과 전략들이 제시되어왔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것들은 공식적인 정책이나 전략으로 국가나 기업에 채택되고 사회에서 수용되기 전에 어디까지나 기호와 담론으로 존재하며 물질화와 제도화를 통해 실현되기 위해서는 권력에 배태된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므로 문화정치경제학은 특정한 정치적, 경제적 이념, 모델, 전략, 범주, 대상의 담론 수준에서의 탄생으로부터 그것이 권력의 행사와 사회정치적 투쟁을 포함한 물질적 실천을 통해 현실화되고 정상화(normalize) 또는 안정화(stabilize) 되어 특정한 사회가 형성되고 유지되고 변화되는 과정을 살핀다.

따라서 문화정치경제학은 현실을 담론으로 환원시키려는 포스트주의적 경향과도 거리를 두며 현실의 비담론적이고 물질적인 측면 또한 강조한다. 즉 정치경제적 과정은 분석의 편의를 위해 여러 단계로 나뉘질 수 있으며 각각의 단계에서 담론과 물질적 힘(materialities)이 작용하는 방식과 정도가 상이하다는 것을 인식한다. 예를 들면 무엇이든 구조가 고착되지 않은 초기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열려 있어 담론 또한 영향력이 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가능성들이 닫히고 구조가 공고화됨으로써 담론 대신 물질적 힘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 그러므로 문화정치경제학은 특정한 정치경제적 이념, 모델, 전략, 범주, 대상에 관한 담론의 탄생에서부터 그것이 물질적 실천을 통해 현실화되고 안정화되어 특정한 사회가 만들어지는 이러한 과정을 ‘변이-선택-보존-강화(variation-selection-retention-reinforcement)’의 4단계로 나누어 분석한다(Fairclough et al., 2002; Jessop, 2004 : 164-165; 2009 : 340-341; cf. Campbell, 1969).

한편 문화정치경제학은 사회과학의 ‘공간적 선회’ 및 최근 논의되고 있는 “얼룩덜룩한 자본주의(variegated capitalism)”론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탈일국적, 지구적 접근법을 지향한다(Peck and Theodore, 2007; Jessop, 2011). 무엇보다도 이 접근법은 자본주의의 다양성 이론과 달리 특정한 국민경제를 지구적 분업 구조에서 떼어내 고찰하는 대신 자본주의 세계경제 내에서의 위계적 분업 구조에 주목한다. 예를 들면 위계적 분업구조 하에

서 고급 지식/서비스 산업이나 자본재 산업에 특화된 지역이나 국가의 수는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그러한 산업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경제체제는 국제적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도 쉽게 복제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문화정치경제학은 방법론적 일국주의, 정치/국가 분석의 취약성, 그리고 문화적 분석의 취약성과 같은 경성정치경제학과 지구정치경제학의 한계들을 극복하고 문화적, 정치적, 역사적, 제도적, 공간적 분석을 통합시킨 정치경제학 방법론을 지향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자본주의와 국가는 주어진 구조 하에서 여러 세력들이 각축하는 분열된 사회관계이자 공간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사회적, 정치적 각축과 투쟁 과정은 특정한 담론, 전략, 세력, 공간에 차별적으로 특권과 우선권을 부여하는 담론적, 전략적, 물질적, 공간적 선택성(discursive, strategic, material, and spatial selectivities)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특정한 정치경제 담론, 전략, 세력, 공간들(예 : 노동유연성, 금융자유화, 낙수효과, 시장통합 등)은 선택, 보전, 강화됨으로써 현실화되고 제도화되는 반면 다른 것들(예 : 고용안정, 금융공공성, 복지국가, 식량안보 등)은 주변화 된다. 우리는 이러한 방법론을 지구문화정치경제학(global cultural political economy)이라 불러도 될 것이다. 물론 지구문화정치경제학도 기존 정치경제학의 모든 한계를 극복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것은 완성된 이론체계라기 보다는 여러 다양한 이론들을 포괄할 수 있는 순수한 방법론적 틀에 가까우며 이러한 방법론을 따르는 사례분석도 아직은 매우 적다. 더구나 경성정치경제학과 지구정치경제학에서처럼 생산, 축적, 분배 등 핵심적인 정치경제학적 문제에 대한 분석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구문화정치경제학은 방법론적 일국주의, 그리고 특히 자연주의적 경향에 대한 강력한 해독제로서 큰 의미를 가지며 따라서 지구정치경제의 변동을 분석하는데 특히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VI. 맺음말 : 정치경제학의 방법론적 토대와 지구문화정치경제학

1. 정치경제학의 역사적 흐름

본 연구는 정치경제학의 여러 흐름들을 사상사적, 방법론적 맥락 속에 위치지음으로써 그것들이 가능하게 된 역사적 조건을 드러내는 동시에 이론적으로 유형화하고 비판했다. 정치경제학의 등장은 근대적인 정치 및 사회와 경제의 분리 과정 및 그것에 대한 인식과 동시적이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근대적 통치의 학문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분리 하에서 정치경제학의 발전은 시대적, 역사적 맥락에 따라 정치와 경제를 특정한 방식으로 관계 짓는 방식의 역사였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다양한 형태를 취한 각각의 정치경제학은 정치-경제의 관계 및 그와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한 이론적·방법론적 입장에 따라 [표 1]과 같이 대체로 구별되고 유형화될 수 있다. 즉 통치술로서의 정치경제학은 정치와 경제의 관계를 어떻게 상정하느냐에 따라 경제주의, 정치적 경제학, 절충주의, 정치주의, 경성정치경제학, 탈일국적 정치경제학, 문화정치경제학 등으로 발전하였다.

[표 1] 정치경제학의 역사적 흐름

		정치-경제 관계	주요 분석대상/관심	주요 분석단위	주요방법론
통치술/ 정책학	고전파 정치경제학 : 스미스, 맬서스, 리카도, 밀	분리	경제/시장	계급/집단	추상/가설/모델 분석
	케인스 거시경제학	분리/부분 통합	경제/정책	집단/국민국가	추상/수학적 분석
경제주의 정치경제학	신고전파 경제학 : 마샬, 제본스, 발라, 멩거 등	분리	경제/시장	개인	추상/수학- 물리학적 분석
	공공선택론, 합리적 선택이론, 분석적 마르크스주의 등	통합 : 경제 > 정치 - 정치의 경제화	정치/정책	개인	추상/수학- 물리학적 분석
	신자유주의/질서 자유주의	통합 : 경제 > 정치 - 정치의 경제화	경제/정치	개인/제도	추상/수학/철학 분석

정치적 경제학	마르크스	통합/분리	경제/축적/정치	집단/계급/구조/세계시장	정치/역사/제도 분석
	역사학과 (리스트, 쾰바르트, 베버)	통합/분리	경제/역사	집단/제도/구조/국민국가	역사/제도 분석
	제도주의(베블렌)	통합/분리	경제/축적/권력/사회	집단/계급/제도/구조/국민국가	역사/제도 분석
	플라니	통합/분리	경제/사회	집단/제도/구조/세계질서	정치/역사/제도 분석
절충주의 정치경제학	신경제사회학	분리	경제/사회	네트워크/사회	추상/수리적 분석
	세계체제론	분리	경제/세계/사회	세계체제(지역 및 국민국가)	역사/제도 분석
정치주의 정치경제학	발전국가론, 포스트모던 경제학 등	통합 : 정치 > 경제 - 경제의 정치화	경제/정책/국가	집단/구조/국민국가	역사/제도 분석
	·포스트모던정치 경제학 ·개방 ·마르크스주의	통합 : 정치 > 경제 - 경제의 정치화	경제/정치/사회	집단/계급/구조/과정	정치/역사/제도/담론 분석
정성정치 경제학	·조절이론/사회적 축적구조론 ·자본주의 다양성	통합/분리	경제/축적/제도	집단/계급/제도/구조/국민국가	정치/역사/제도/계량 분석
탈일국 정치경제학	급진 경제지리학	통합/분리	경제/축적	지역/공간/집단/계급	역사/제도/계량 분석
	국제정치경제학	통합/분리	경제/세계	국민국가/국제기구	역사/제도분석
	지구정치경제학 : 신그람시주의/초국적 역사유물론	통합/분리	경제/축적/정치-사회	초국적 자본가계급/세계질서	정치/역사/제도 분석
	정성지구정치 경제학 : 권력자 본론	통합	경제/축적/권력/	집단/제도/과정/지구적 질서	정치/제도/역사/계량 분석
지구문화 정치경제학	문화정치경제학	통합/분리	경제-축적/국가-정치-사회	집단/계급/국민국가/지구적 구조와 질서	정치/역사/제도/담론/문화 분석

※ 부등호(>)는 정치-경제 사이의 위계관계를 나타냄.

정치경제학은 역사적으로 국민국가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형성기에 국가가 스스로의 경제적 개입을 제한함으로써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고 경제의 자율적 논리를 촉진하여 부국강병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통치술’의 발전이라는 맥락 속에서 등장하였다. 그 최초의 형태인 고전파 정치경제학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스미스, 맬서스, 리카도, 밀 등의 고전파 정치경제학은 추상화, 단순화의 방법론에 기초

해 자유방임과 이를 위한 적절한 정부의 역할을 처방하였다. 하지만 동시에 고전파 정치경제학은 정부 정책 외에도 계급 사이의 소득 배분을 주된 문제로 인식함으로써 집단을 분석단위로 삼고 제한적이거나 정치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문제를 직접 다루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자유무역을 옹호하면서도 국부의 증진을 목표로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후 정치경제학의 분화와 발전은 경제라는 독립된 영역에 대한 과학이자 통치술/정책학이라는 이러한 고전파 정치경제학의 이중적 특성에 대한 대응에서 나온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우선 제본스, 멩거, 마샬, 발라 등의 신고전파 경제학 또는 ‘경제주의’ 정치경제학은 고전파 정치경제학의 방법론과 처방을 발전시키고 경제라는 독자적인 영역의 개념화를 완성하였다. 즉 수학을 통해 추상화, 단순화의 방법론을 심화시키고 분석 단위를 집단에서 개인으로 이동시킴으로써 보다 일관된 자유주의적 노선을 취하고 경제학을 독립된 학문으로 정립하였다. 이들은 그 이데올로기적 성격과 더불어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없고 표준화될 수 있는 방법론을 사용함으로써 학계에서 권위를 얻고 점차 주류로 성장할 수 있었다.

한편 케인스의 ‘일반이론’은 한편으로는 국민경제 또는 거시경제를 분석단위로 삼고 경제정책의 정치적, 규범적 성격을 이해함으로써 ‘통치술/정책학’의 문제의식을 계승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추상화, 단순화의 방법론을 사용하고 자본주의의 변혁 대신 개량을 처방함으로써 신고전파 경제학의 방법론과 쉽게 호환될 수 있었다.

따라서 신고전파의 승리라는 맥락에서 2차 대전 후의 경제학은 케인스의 경제학을 신고전파 경제학에 통합시키는 형태(신고전파 종합)로 발전하였고 공공선택론과 합리적 선택이론과 같은 정치·사회 현상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도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1970년대 위기 이후 국가개입의 실패로 경제학 또는 경제 우위의 관점에서 정치를 평가하는 ‘경제학적 정치사상’으로서의 신자유주의가 확산되었다.

반면에 ‘정치적 경제학’(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비판, 리스트, 쾰바르트, 베버 등의 역사학과, 베블렌 등의 제도학과)은 고전파 정치경제학의 경제성장에 대한 관심, 집단 분석과 정치적 성격을 계승하였다. 하지만 ‘정치적 경제학’은 신고전파 경제학과의 투쟁에서 패배하여 주변화되고 사회학, 정치학 등으로 흡수되거나 ‘정치주의’ 혹은 ‘절충주의’ 정치경제학으로 타락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신고전파 경제학과 신

자유주의 경제사상의 득세에 대한 대응으로 마르크스, 베블렌, 폴라니, 등의 역사적, 제도적 접근을 계승한 ‘경성 정치경제학’의 조류가 부활하고 있다. 동시에 20세기 후반의 ‘탈일국적 정치경제학’(급진 경제지리학, 국제정치경제학, 지구정치경제학)은 근대 정치경제학의 또 다른 오랜 인식론적 한계인 ‘방법론적 일국주의’를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2. 정치경제학의 방법론적 토대들 : 이론적 비판과 대안

요약하면 이러한 정치경제학의 역사를 우리는 대체로 정치와 경제를 긴밀히 연결시키는 정치적, 사회적, 제도적, 역사적 방법론과 정치로부터 경제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추상적, 수리적 방법론의 대결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정치경제학의 세 조류는 정치-경제 관계라는 그 방법론적 토대의 측면에서 정치와 경제 중 어느 한 쪽을 우위에 두는 환원주의(경제주의, 정치주의), 정치적 분석과 경제적 분석 사이의 절충주의를 포함한 연성경제사회학/정치경제학, 그리고 정치와 경제를 긴밀히 연결시키지만 어느 한 쪽으로 환원시키지는 않는 경성정치경제학, 탈일국적 지구정치경제학 등으로 보다 세분화될 수 있다. 즉 정치경제학은 초기에는 자율적 경제영역의 독자적 논리에 기초한 자유주의적 통치술과 정책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으며 제한적이지만 여전히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분석을 지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에 정치경제학은 본래와 달리, 정치를 완전히 탈각한 경제학 혹은 정치현상에 대한 경제학으로 변모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동으로 정치의 우위성을 주장하는 정치주의/정치환원론이나 정치학-경제학의 절충론이 나오기도 하였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경제 및 사회질서의 정치적, 역사적, 제도적, 문화적 성격에 대한 균형 잡힌 분석과 일국 단위를 뛰어넘는 지구적 분석 또한 발전하였다.

방법론적 측면에서 볼 때, 통치술/정책학으로서의 고전파 정치경제학과 케인스 거시경제학은 정치와 경제를 자유주의적인 분리를 전제한 후에 국가의 경제에 대한 특정한 개입을 논한다. 하지만 정치와 경제의 분리는 경제에 대한 정치적 개입 자체를 문제적으로 만든다. 정치와 정부의 개입은 한편으로 시장의 논리를 왜곡하고 교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실제로 경제는 국가의 개입을 끊임없이 요구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론에 따르면 국가는 경제에 개입할 수도 없고 개입 안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

지는 것이 당연하다(cf. Offe, 1984). 결국 국가개입이 허용되는 경우와 안되는 경우를 나누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따라서 국가의 경제개입은 이론적으로는 자의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경제적 영역이나 논리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환원주의나 절충주의 정치경제학 또한 방법론적 관점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경제주의 정치경제학은 경제 또는 정치현상을(시장적 논리와 효용 극대화 같은) 자율적인 경제논리에 의거해 분석한다. 여기서 정치현상의 고유성은 소멸되고 경제로 환원된다. 따라서 경제의 정치적 성격은 은폐된다. 반대로 정치주의 정치경제학은 경제현상을(관료적 합리성, 정치적 투쟁과 같은) 자율적인 정치논리에 의거해 분석한다. 여기서는 경제현상의 고유성이 소멸되고 정치로 환원된다. 따라서 정치의 경제적 성격은 은폐된다. 정치사회적 분석과 경제적 분석을 단순 결합시키는 절충주의 정치경제학(또는 연성경제사회학)은 기본적으로 경제현상을 직접 분석하기보다는 경제현상의 정치적, 사회적 조건을 분석한다. 따라서 정치와 경제는 상호 분리된 것으로 자리가 매겨지고 그 상호관계는 적절히 분석되지 않는다.

이러한 정치경제학의 여러 조류와 달리(정치주의와는 구별되는) 정치적 경제학을 발전시킨 경성정치경제학은 경제현상의 정치적, 사회적 조건 뿐 아니라 그 핵심의 정치적, 사회적 본성을 분석하는 동시에 경제현상 또한 본격적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조절이론, 사회적 축적구조론 등의 경성정치경제학은 경제현상의 정치적/사회적 조건뿐만 아니라 경제현상의 고유한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하지만 종래의 경성정치경제학은 그럼에도 앞서 논했듯이 정치 분석을 상대적으로 경시할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의 지구적 차원을 경시하는 등의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달리 급진 경제지리학, 국제정치경제학, 초국적 역사유물론, 권력 자본론과 같은 탈일국적 지구정치경제학은 분석 대상을 다양한 지역 단위, 국제관계, 그리고 지구적 과정과 구조로 공간적으로 확대시킴으로써 방법론적 일국주의적 편향을 극복하고 경성정치경제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다. 하지만 이들은 경제의 상징적·문화적 측면을 경시하고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경제적 범주(예 : 시장, 자본, 화폐, 상품, 이윤, 경쟁력, 위기 등)가 마치 자연적으로 본래부터 존재했던 것처럼 물화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필자는 이러한 경성정치경제학과 지구정치경제학에 제소파 섬(Jessop and Sum, 2013)이 최근에 발전시킨 문화정치경제학 방법론을 결합시켜 지구문화정치경제학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지구문화정치경제학은 권력이 배태된 기호적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구적으로 연관된 경제 현상들의 근본적으로 정치사회적인 성격에 대한 분석을 한층 더 심화한다. 물론 지구문화정치경제학은 몇 가지 사례연구(예 : Ji, 2013)를 제외하면 아직은 방법론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따라서 보다 많은 실제의 경험연구로 다른 방법론에 대한 경쟁우위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지구문화정치경제학은 다른 정치경제학 이론들과 달리 완성되거나 완결된 이론체계가 아니며 상대적으로 느슨한 방법론적 틀에 가깝다. 따라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이론도 아니거니와 정치경제학 방법론의 최종적 발전단계인 것도 아니다. 하지만 실제의 성과 그리고 총체성을 지향하는 연구에 따르는 일반적인 난점들과는 별개로 문화적, 정치적, 역사적, 제도적, 공간적 분석의 통합이라는 지구문화정치경제학의 방법론적 지향과 원칙은 유의미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 구분우(2012). 『칼 폴라니, 반경제의 경제학』. 비르투.
- 박길성, 이택면(2007). 『경제사회학이론』. 나남.
- 이현창(2008). “Political economy와 Economics의 개념과 번역”, 『개념과 소통』, 제1집 1호. 113-177.
- Amsden, Alice H.(1989). *Asia's Next Giant :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Arrighi, Giovanni(1994). *The Long Twentieth Century : Money, Power and the Origins of Our Times*. London : Verso.
- Becker, Gary S.(1976). *The Economic Approach to Human Behavior*.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renner, Neil(2004). *New State Spaces : Urban Governance and the Rescaling of Statehood*.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 Boyer, Robert(1990). *The Regulation School : A Critical Introduction*.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 Boyer, Robert & Saillard, Yves(ed.)(2002). *Regulation Theory : The State of the Art*. London : Routledge.
- Campbell, Donald T.(1969). “Variation and Selective Retention in Socio-Cultural Evolution”, *General Systems*, 14. 69-85.

- Caporaso, James A. & Levine, David P.(1992). *Theories of Political Economy*.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stells, Manuel(1996).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Oxford : Blackwell.
- Cohen, Benjamin J.(2008).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 An Intellectual History*.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ox, Robert(1986). “Social Forces, States and World Orders : Beyo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 Robert Keohance(ed.) *Neorealism and Its Critic*.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 Cox, Robert(1987). *Production, Power, and World Order : Social Forces in the Making of History*.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 Diskin, Jonathan, & Sandler, Blair(1993). “Essentialism and the Economy in the Post-Marxist Imaginary : Reopening the Sutures”, *Rethinking Marxism*, 6. 28-48.
- Downs, Anthony(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 Harper & Row.
- Elson, Diane(1979). “The Value Theory of Labour”, In idem(ed.), *Value : The Representation of Labour in Capitalism*. London : CSE Books.115-180.
- Elster, Jon(1985). *Making Sense of Marx*.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vans Peter(1995). *Embedded Autonomy : States and Industrial Transformation*.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Foley, Duncan(2011). 『아담의 오류』(김덕민·김민수 역). 후마니타스.
- Fairclough, Norman, Jessop, Bob & Sayer, Andrew(2002). “Critical Realism and Semiosis”, *Alethia* 5. 2-10.
- Foucault, Michel(1991). “Governmentality”, In Graham Burchell(ed.), *The Foucault Effect : Studies in Governmentality*. Harvester Wheatsheaf. 87-105.
- Foucault, Michel(2008). *The Birth of Biopolitics*. Translated by G. Burchell. London : Palgrave Macmillan.
- Fourcade, Marion(2009). *Economists and Societies : Discipline and Profession in the United States, Britain, and France, 1890s to 1990s*.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Friedman Milton & Friedman, Rose(1980). *Free to Choose : A Personal Statement*. New York : Harcourt Brace Jovanovich.
- Gill, Stephen(ed.)(1993). *Gramsci, Historical Materialism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ilpin, Robert(2001). *Global Political Economy : Understanding the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all, Peter A. & Soskice, David(eds.)(2001). *Varieties of Capitalism :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Comparative Advantage*.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 Hancke, Bob(ed.)(2009). *Debating Varieties of Capitalism : A Reader*.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 Harvey David(1999). *The Limits to Capital*. London : Verso.
- Hayek Friedrich A.(1944/2001). *The Road to Serfdom(Reader's Digest)*. London : Institute of Economic Studies.
- Hayek, Friedrich A.(1988). *Fatal Conceit : The Errors of Socialism*.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eld, David(2006). *Models of Democracy*, 3rd Ed. Cambridge : Polity Press.
- Helleiner, Eric(1994). *States and the Reemergence of Global Finance : From Bretton Woods to the 1990s*. Ithaca : Cornell University Press.
- Hirschman, Albert O.(1994). 『열정과 이해관계 : 고전적 자본주의 옹호론』(김승현 역). 나남.
- Hirschman, Albert(1969). *Exit, Voice and Loyalty*.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 Hodgson, Geoffrey M.(2001). *How Economics Forgot History : The Problem of Historical Specificity in Social Science*. London : Routledge.
- Hollingsworth JR, Boyer R,(eds.)(1997). *Contemporary Capitalism : The Embeddedness of Institutions*.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ng, Hoon(2000). "Marx and Menger on Value : As Many Similarities as Difference,"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24. 87-105.
- Hovart, Branko(1985). "Political Economy", In A. Kuper and J. Kuper(eds.), *The Social Science Encyclopedia*. London : RKP. 611-612.
- Hunt. E. K.(2012). 『자본주의에 불만 있는 이들을 위한 경제사 강의(유강은 역)』. 이매진.
- Jessop, Bob(1990). *State Theory : Putting the Capitalist State in Its Place*. Polity Press.
- Jessop, Bob(2000). "The Crisis of the National Spatio-Temporal Fix and the Tendential Ecological Dominance of Globalizing Capitalism,"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4. 159-174.
- Jessop, Bob(2004). "Critical Semiotic Analysis and Cultural Political Economy," *Critical Discourse Studies* 1. 159-174.
- Jessop, Bob(2009). "Cultural Political Economy and Critical Policy Studies", *Critical Policy Studies*, 3. 336-356.
- Jessop, Bob(2011). 'Rethinking the Diversity of Capitalism : Varieties of capitalism, variegated capitalism,

- and the world market', in G. Wood and C. Lane(eds), *Capitalist Diversity and Diversity within Capitalism*. London : Routledge. 209–237.
- Jessop, Bob & Sum, Ngai-Ling(2001). "Pre-Disciplinary and Post-Disciplinary Perspectives on New Political Economy." *New Political Economy* 6. 89–101.
- Jessop, Bob & Sum, Ngai-Ling(2006). *Beyond the Regulation Approach : Putting Capitalist Economies in Their Places*. Cheltenham, UK : Edward Elgar.
- Johnson Chalmers(1982).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 : The Growth of Industrial Policy, 1925–1975*. Stanford : Stanford University Press.
- Ji, Joo-Hyoung(2013). "The Neoliberalization of South Korea after the 1997 Economic Crisis : A Cultural Political Economy of Crisis Discourse and Crisis Management",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47. 33–58.
- Keohane, Robert(1989). "Neoliberal Institutionalism : A Perspective on World Politics",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State Power : Essay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Westview Press. 1–11.
- Keynes, John Maynard(2007).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개역판)』(조순 역). 비봉.
- Kotz, David M., McDonough, Terrence and Reich, Michael(eds.)(1994). *Social Structures of Accumulation*.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sh, Scott, and John Urry(1987). *The End of Organized Capitalism*. Cambridge : Polity Press.
- Lash, Scott, and John Urry(1994). *Economies of Signs and Space*. London : Sage Publications.
- Luhmann Niklas(1995). *Social Systems*. Stanford : Stanford University Press.
- Lukacs, Georg(1993). 『역사와 계급의식 : 맑스주의 변증법 연구』(박정호·조만영 역). 거름.
- Marx, Karl(1976[1863]). *Capital*, Vol.1. London : Penguin Books.
- Morishima, Michio(1973). *Marx's Economics : A Dual Theory of Value and Growth*.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itzan, Jonathan & Bichler, Simshon(2002). *The Global Political Economy of Israel*. London : Pluto Press.
- Nitzan, Jonathan & Bichler, Simshon(2009). *Capital as Power : A Study of Order and Creorder*. London : Routledge.
- Offe, Claus(1984). *Contradictions of the Welfare State*. Cambridge, Mass : The MIT Press.
- Olson, Mancur(1965).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 Okishio, Nobuo, Mitsuhiko Tsuruda & Yasuhiko Yoneda(1990). 『정치경제학원론』(류동민 역). 과학과 사상.
- Pateman, Carole(1970). *Participation and Democratic Theory*.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eck, Jamie & Theodore, Nik(2007). "Variegated Capitalism",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1(6). 731-772.
- Petridis, Ray(1999). "Neoclassical Economics," In Phillip Anthony O'Hara(ed.), *Encyclopedia of Political Economy*. London : Routledge. 788-793.
- Polanyi, Karl(2009). 『거대한 전환 우리 시대의 정치경제적 기원』(홍기빈 역). 길.
- Purcell, Mark(2002). "The State, Regulation, and Global Restructuring : Reasserting the Political in Political Economy."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9. 298-332.
- Resnick, Stephen & Wolff, Richard(1987). *Knowledge and Class : A Marxian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oemer, John(ed.)(1986). *Analytical Marxism*.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uggie, John Gerard(1982). "International Regimes, Transactions, and Change : Embedded Liberalism in the Postwar Economic Order," *International Organization*, 36(2). 379-415.
- Schabas, Margaret(2005). *The Natural Origins of Economics*.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kidelsky Robert(2000). 『케인스』(이상훈 역). 시공사.
- Smith, Adam(1998). 『국부론(상)』(김수행 역). 두산동아.
- Sombart, Werner(1928). *Der Moderne Kapitalismus*, Vol. 2 Duncker & Humboldt.
- Sombart, Werner(1997). 『사치와 자본주의』(이상률 역). 문예출판.
- Sombart, Werner(2001). "Capitalism," In idem, *Economic Life in the Modern Age*. London : Transaction Publishers. 3-29.
- Strange, Susan(1997). "카지노 자본주의", 김우상 외 편, 『국제관계론 강의 2』. 한울 아카데미. 115-37.
- Sum, Ngai-Ling & Jessop, Bob(2013). *Towards Cultural Political Economy : Putting Culture in Its Place in Political Economy*. Cheltenham, UK : Edward Elgar.
- Schumpeter, Joseph Alois(1990).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이상구 역). 삼성출판사.
- Schumpeter, Joseph Alois(2005). 『경제발전의 이론 : 기업가 이윤, 자본, 신용, 이자, 경기순환에 관한 연구』(박영호 역). 박영출판사.
- Schumpeter, Joseph Alois(2007). 『경제학의 역사와 방법』(성낙선 역). 한신대학교 출판부.
- Swedberg, Richard(1998). "Max Weber's Vision of Economic Sociology", *Journal of Socio-Economics*, 27(4). 535-555.
- Swedeberg, Richard & Granovetter, Mark(eds.)(2001) *The Sociology of Economic Life*, 2nd Ed. Westview Press.

- van der Pijl, Kees(1984). *The Making of an Atlantic Ruling Class*. London : Verso.
- van der Pijl, Kees(1998). *Transnational Classe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 Routledge.
- Veblen, Thorstein(2009). 『자본의 본성에 관하여 외』(홍기빈 역). 책세상.
- Veblen, Thorstein(2012). 『유한계급론』(김성균 역). 우물이 있는 집.
- Wallerstein, Immanuel(2005). 『월러스틴의 세계체제 분석』(이광근 역). 당대.
- Weber, Max(1976).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London : George Allen & Unwin.
- Weber, Max(1979). *Economy and Society : An Outline of Interpretive Sociology*.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Weber, Max(1990). 『사회경제사』(조기준 역). 삼성출판사.
- Weiss Linda & Hobson, John M.(1995). *States and Economic Development : A Comparative Historical Analysis*. Cambridge : Polity Press.
- Wikipedia. “Neoclassical economics” http://en.wikipedia.org/wiki/Neoclassical_economics(검색일 : 2013. 10.9.)
- Woo-Cumings, Meredith(ed.)(1999). *The Developmental State*. Ithaca : Cornell University Press.
- Yonay, Yuval P.(1998). *The Struggle over the Soul of Economics : Institutional and Neoclassical Economists in America between the Wars*.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Abstract ■

The Methodological Foundations of Political Economy :
A Historical Survey and Theoretical Critique

JOO-HYOUNG JI***

This study locates various currents in political economy in their historical and methodological contexts to reveal their historical conditions and theoretically categorize and critique them. The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can be characterized as the struggle between political, social, institutional, and historical methods and abstract, mathematical, and modelling methods around the problem of how to relate politics and economy. Through this struggle, political economy has developed a number of competing and contrasting methodological foundations : reductionism(economism and politicism),

*** KYUNGNAM UNIVERSITY

soft economic sociology and political economy including eclecticism and separatism on the one hand, and hard political economy, post-national global political economy, and cultural political economy on the other. In its earliest stage, political economy did not fully abandon political analysis although its main role was to provide theoretical grounds for liberal governmentalities and policies in line with the (supposedly) autonomous logic of the economic sphere. However, soon it broke with its origins and transformed into (allegedly) politics-free economics or even economic analyses of political phenomena. Then this transformation brought about reactions such as eclecticism, politicism or political reductionism. Nonetheless, political economy also developed hard political economic methods for analyzing political, historical, institutional nature of the economic and social order as well as global analysis beyond the national scale. However, conventional hard political economy tend to neglect political analysis as well as the global dimensions of the political economy in its actual practice. Post-national or global political economy tends to neglect the symbolic and cultural dimensions of the economy and naturalize economic categories such as market, capital, money, commodity, profit, competitiveness and crisis as if they were pre-given rather than being socially constructed. From this perspective, this article suggests global cultural political economy as a methodological orientation by combining hard political economy, global political economy and cultural political economy.

Key Words : methodologies of political economy,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economism, politicism, eclecticism, global cultural political economy

■ 논문투고 : 2013년 8월 30일 논문심사 : 2013년 9월 13일-9월 30일 게재확정 : 2013년 10월 7일